

종교공간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빛의 연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henomenological Light in the Religious Space

김미례* / Kim, Mi-Rye

김문덕** / Kim, Moon-Duck

Abstract

From the ancient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light has been an important theme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space. Especially in the religious space, the light was manipulated to express the worship for a god more than a physical element of the nature. It implied that human's space perception through the light was considered prior to the space itself. The perceptual experience in space was primarily elicited by the light with other factors, such as water, texture, and sound which temporarily renewed and updated the information of space.

In this study, we crit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light which enhanced human's perceptual experience in the religious space in the view of Merleau Ponty's phenomenological philosophy. We suggested that the light was one of the most effective factors to expr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us space with respect to the Phenomenological Light which contributed to the continuity of time, expansion and direction of space, immaterialization, and perceptual illusion.

키워드 : 빛, 종교건축, 현상학, 메를로 폰티, 공간인지

Keywords : Light, Religious space, Phenomenology, Merleau Ponty, Space percep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건축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빛은 독특한 표현과 다양한 해석으로 공간 속에서 내부공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특히 종교건축에 있어서의 빛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기보다, 신에 대한 신앙심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수단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공간이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먼저 인간이 그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공간 인지에 있어서 지각 체험을 유발하는 요소는 가장 중요한 빛과 더불어 물, 질감, 소리인대 이들은 모두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여 인간의 체험을 새롭게 한다.

연구 목적은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의 현상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현대 종교공간에서 인간의 지각 체험을 극대화하는 사고를 전개하는 수단으로서 빛의 연출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빛과 종교건축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어져 왔으나 그 영역은 근현대의 거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진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그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작인 1990년 이후에 완성된 현대 종교공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현상학과 공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현상학과 실내공간에서의 지각체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내릴 것이며, 둘째, 실내공간에서의 현상적 지각적 체험을 유도하는 요소 중 빛에 관해 정의를 내릴 것이다.

셋째, 국내외 종교공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각 체험요소인 빛의 성격과 공간에 있어서의 작용에 대해 분석하여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단, 연구대상은 자연 빛과 인공 빛을 모두 포함하는 빛 자체이며, 그 빛이 담겨진 종교공간 그리고 인간지각의 체험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2. 현상학과 빛의 의미에 관한 고찰

2.1. 현상학의 의미와 전개

현상학은 '실제적인 지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상'을 연구하

* 정회원,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 석사과정

** 전임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는 철학적 사조를 지칭한다. 현상학에서 중시하는 ‘현상’은 ‘특정한 마음의 형이상학에 좌우되지 않고 무엇이든 지각적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이다.’¹⁾

현상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드문드 후설(Edmund Husserl)은 가시적인 현상을 평가절하 해온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의식으로 나타나는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물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현상학이라고 했다. 즉 현상학은 본질을 서술하며, 일체의 문제는 결국 본질을 정의하는 일에 귀착하며,²⁾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서술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에드문드 후설(Edmund Husserl)의 사고는 프랑스의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에 이르러 더욱 계승되고 확장되었으며, 인간의 지각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는 저서 ‘지각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에서 ‘지각은 인간의 반성을 위한 근거가 되며 세계 속에 포함되어 그 부분을 이루고, 신체는 바로 지각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지각이란 개인과 사물의 가장 원초적인 만남, 즉 주관과 객관이 결합하는 원초적인 체험이며, 어떠한 반성이나 판단이전에 인간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도구이다.

2.2. 현상학을 통한 공간과 지각체험

(1) 공간 해석의 변화와 현상학의 인식

건축은 근대 이후 물적 대상에 대해서만 사고를 한정하였다. 그것은 주어진 대지에 건축이 어떤 체적으로 구축되는가가 중요하였다. 근대의 사고에서 건축은 자연, 도시, 주변, 환경, 생활과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근대주의의 기계적 패러다임에서 건축의 미적 체험은 사물의 외연적인 형태에만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형태만을 해석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³⁾ 결국, 건축을 대상이 아닌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이 생겨나게 된 것이며, 새로운 방법으로 공간을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간을 바라봄에 있어서 현상학적 의미는 인간의 모든 체험에서 비롯되어 건축, 즉 공간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입장이다.

(2) 실내공간의 현상적 지각 체험

현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의식은 지각을 통해서만 주어진다.⁴⁾ 특히 현상의 지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되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지각을 말하며, 이것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지각은 이 감각과 외부의 자극 대상의 관계까지 포함시켜 인지하는 과정을 뜻한다.⁵⁾

공간 안에서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은 메를로 폰티가 말한 것처럼 신체와 세계와의 상호 교류라는 지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호보완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공간 안에서 인간의 경험은 오감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공간 체험하는 방식은 이들 감각 중 “눈”이 이끄는 시각적·지각적 관계와 “몸”에 근거한 촉각적·존재적 관계가 서로 합해진 것⁶⁾이라 하겠다. 공간에 있어서 ‘현상적 체험’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내포된 모든 것을 말한다. 즉, 시각적인 자극 및 인체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자극을 포함하며, 이차적으로는 물리적 자극의 내면에 배어있는 느낌, 상상력, 의미를 포함하고, 삼차적으로는 물리적 자극이 인간 존재와 관련 되어 ‘인간-환경’이라는 이분법을 택하지 않고,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져 융합하는 총체적 현상의 체험을 의미한다.⁷⁾

2.3. 빛의 의미와 종교공간

(1) 공간에서의 빛의 의미

빛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빛이 존재함으로써 인간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다. 자연 속의 모든 구성 요소와 산, 시냇물, 공기 그리고 우리 자신들,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존재해온 빛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서지기 쉬운 이와 같은 모든 물질들은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며 이러한 그림자는 빛에 귀속된다. 그래서 빛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된다.⁸⁾ 공간은 빛과 함께 인지가 되며, 공간이 없는 빛은 암흑 일뿐 더 이상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빛을 받아들이려는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인간 거주 환경에 적합한 밝기를 얻으려는데 있으나, 공간에서 빛은 적합한 조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공간의 질과 성격을 좌우하며,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2) 빛과 종교공간

건축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빛을 다양하게 포착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로부터 기독교의 뿌리가 태어난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 까지 빛을 통제함으로써 공간의 신성함과 신에 대한 신앙심을 유발했으며, 빛을 무제한적으로 유입함으로써 종교적으로 초월적인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현대 건축가들은 빛을 공간의 주요 모티브로 한 종교공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밀도있는 종교건축들을 만들고 있다.

5) 김선희,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1989, p.22

6) 김광현, 건축과 공간, 이상건축, 2000.7 p.123

7) 임승빈, 도시에서의 현상적 체험, 공간, 1994.1, p.51

8) John Lobell, Between Silence and light, 침묵과 빛, 김경준 역, 미진사, 1992, p.22

1) 김영민, 현상과 시간, 도서출판 까치, 1995, p.44

2) 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예술출판사, 1991, p.189

3) 박길룡, 현상으로서 건축, 공간, 1994.1, p.23

4) 메를로 폰티,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평역, 서광사, 1983, p.63

3. 공간에서의 현상학적 빛의 해석

3.1. 빛의 지각적 특성

조형과 공간을 인지토록 하는 가장 큰 구성요소는 빛이라 할 수 있다. 빛은 명암의 정도에 따른 윤곽에 따라 사물의 형태와 질감을 인식시키고, 공간의 형태 및 구성을 외부로 드러나도록 한다. 물리적 차원에서 공간의 인지란 결국 시각과 시야에 들어 오는 면을 3차원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서 시지각 측면에서 빨리 인지되는 공간 구성요소가 바로 공간의 지각요소가 된다.⁹⁾

빛의 지각특성은 다음과 같이 4개 항목으로 세분화 된다.¹⁰⁾

첫째, 빛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지각(공간의 모양, 크기, 위치, 광휘 및 물체 표면의 물리적 성질) - 물체의 개별적인 형태와 그 물체가 지나는 물리적인 성격이 상이한 크기나 비례를 지닌 다른 형태와 비교될 때 더욱 잘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빛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지각 - 시간에 따른 주기적 또는 순간적인 빛의 변화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이런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빛의 변화는 윤곽이나 형태에 명암의 차이를 주어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 형태감이나 깊이감 등을 다양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명암의 지각으로 이것은 빛의 농담 및 그림자에 의한 조형물과 공간의 포괄적인 지각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색의 지각을 들 수 있다. 빛의 색, 표면의 색, 투과된 색 등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3.2. 빛의 변화에 따른 지각적 연출효과

공간의 인지를 함에 있어서 빛의 변화는 존재간의 비출과 비추임 사이에서 공간을 인지함에 많은 영향을 줌과 동시에 공간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빛은 개구부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공간의 영역, 크기, 방향, 위치 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켜, 공간 인식을 변화, 발전, 확산, 통합을 이룬다.

이러한 빛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빛의 시간성과 공간 재료, 공간 구조와 더불어 공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빛은 밝기, 대비, 색의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빛의 물리적인 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성질과 빛이 피사체와 만날 때의 움직임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통과, 흡수, 반사로 정리 할 수 있겠고, 빛이 통과하는 움직임은 그 물체 안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직접 전도 현상과 확산 전도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¹⁾

9)김진균, 시각구조 분석에 의한 건축공간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2호, 1994, p.76

10)Jonathan Glancy & Richard Bryant, The Mew Moderns, Reed International Books Ltd., 1990, p.66

빛은 공간을 구축하는 요소로서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행동을 유발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여 공간의 성격과 질을 결정하고 공간감의 지각과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3. 현상적 체험요소로서의 빛의 특성

(1) 시간의 연속성

시간에 대한 근대적인 개념은 선적이고 분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미디어의 침투는 건축 공간의 지각에서 시간의 팽창으로 시간은 단절된 요소에서 연속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¹²⁾ 그것은 고전의 투시도적 공간개념에서 표현된 단절된 시간이 아닌 동일시간의 불완전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에서 시간의 확장은 사물을 지각하는 기반이 되며, 새로운 지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2) 확장성

공간을 지각함에 있어서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는 여러 가지 공간의 차원 중 '깊이'가 가장 실존적인 속성이라고 했다. 깊이는 대상자체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조망에 속하고 사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깊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¹³⁾

공간에 있어서 빛에 의한 시각적 확장은 인간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축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현상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¹⁴⁾

(3) 방향성

빛에 의한 공간의 지각의 효과는 정적인 공간과 공간 간의 결합에 있어 흐름을 유도하고 축선을 강조, 혹은 변화시킴으로 긴장감과 방향성을 유발하여 역동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것은 또한 복잡해진 공간구조의 위계의 연결에 있어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4) 인지성과 복합성

공간은 빛에 의해 발생된 음영에 따라 윤곽이 형성되어지며, 빛은 빛나는 표면에 의해 반사되고, 그 자체가 다시 상대적인 명암을 가진 물체 위에 떨어져 새로운 인지체계를 형성한다.¹⁵⁾ 빛을 통한 공간인지에 있어 빛의 특성에 의해 공간의 영역이나 크기, 방향, 위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켜서¹⁶⁾ 겹공간의 형성, 사선도입, 모서리확장, 구조화된 불규칙성, 내부적 경계설정 등의 형태로 복합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빛의 지각적 연출 효과를 통해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인간의 시각

11)고광용, 지각적 측면으로 접근한 빛의 연출방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3, pp.48-49

12)Steven Holl, Question of Perception, A+U, 1994, p.74

13)M. Merleau Ponty,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p.371, p.389, p.403

14)C. No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77, pp.42-44

15)Donis A. Dondis, 시각인식력의 입문서, 이영역 역, 기문당, 1994, p.61

16)오승남·이호중, 빛을 통해 표현되는 공간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2호 통권49호, 2005.4, p.196

에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체험속의 공간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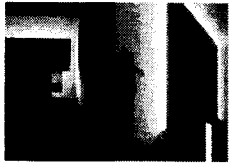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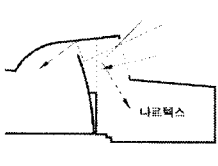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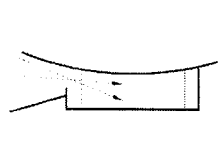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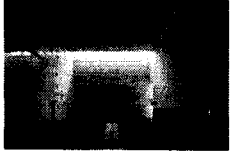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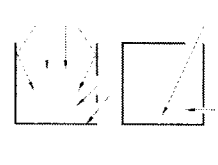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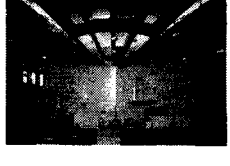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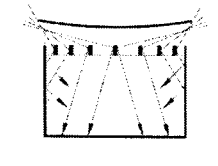
(5) 탈물질성과 환상성

빛이 색이나 재료와 결합하여 색채와 그림자, 반사와 투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본래의 물성을 탈물질화시켜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¹⁷⁾ 빛이 전혀 다른 매질인 물이나 거울 등의 반사면을 통해서 반사하고, 투명한 소재를 통해 외부에서도 빛이 발산되는 효과를 얻어 감각의 착각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그물망 등의 재료를 이용한 그림자 효과와 다양한 색광조명은 빛에 의한 환상성을 극대화 해준다.

4. 사례분석을 통한 빛의 현상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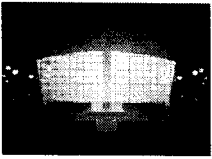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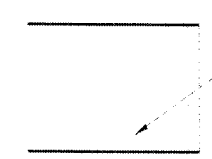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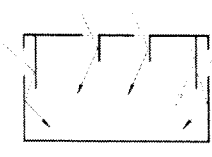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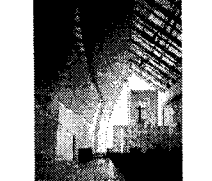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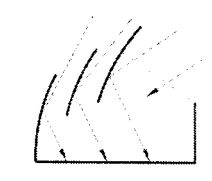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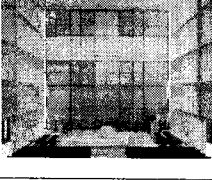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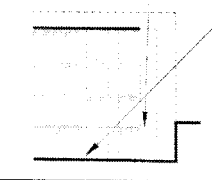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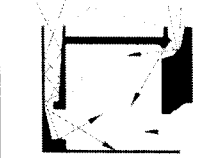
종교 공간에 있어 빛의 연출은 신도나 방문자들에게 경외감과 신앙심을 고양시키는 가장 큰 수단이다. 단순히 빛을 비추이게 하는 것만 아니라 현상학적인 측면에 의한 빛의 효과를 이용한 연출로 종교공간에서 빛에 의한 공간의 차별화를 전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공간을 현상학적 측면으로 접근, 1990년대 이후 종교 공간을 사례로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2> 참조)

<표 1> 1990년대 이후 종교공간에서 나타난 빛의 현상학적 특성에 관한 사례조사

공간 사례	지각적 특성	지각적 연출효과	현상적 특성	빛의 특성 분석
<p>성 이그네이셔스 채플, Steven Hall, 미국, 1997</p>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색 지각	굴절 반사	시간의 연속성 인지성 탈물질성 환상성	7개의 빛의 병을 주재료로 한 공간구성은 광창을 통해서 빛을 유입하되 빛의 차단장치를 이용한다. 틈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채색된 벽으로 인해 빛 자체에 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행렬과 나르텍에서는 자연광색을, 네이브의 동쪽은 노란색, 서쪽은 청색, 성찬예배실은 오렌지색, 성가대석은 초록색, 고백실에는 자주 빛으로 사용하였으며, 마지막 빛은 밤에 내부의 빛이 투사되어 굴절되는 연못에 의해 표현된다. 다양한 개구부와 빛의 볼륨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서로 다른 빛의 성질을 내부에 끌어들이므로서 탈물질성과 자연과 빛의 현상적 경험을 강화한다.
<p>물의 절(Water Temple), Ando Tadao, 일본, 1991</p>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명암 지각 색 지각	통과 흡수	시간의 연속성 인지성 방향성 환상성	법당은 벽체가 주홍빛인 타원형 복도로 감싸져 있다. 빛 우물(light well)의 빛은 좁은 복도에서 법당으로 빛을 유도하여 방문자의 동선을 인도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면 빛 우물을 통해 붉은색 격자의 개구부로 빛이 들어와 마치 석양으로 공간이 가득 채운 듯이 보이며, 종교의 신성함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며, 색채와 물질이 결합된 빛과 공간은 탈물질성을 띤 환상성을 부각한다. 격자무늬의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 바닥에 강약으로 드리워져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p>중곡동 성당, 승효상, 한국, 2002</p>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명암 지각	굴절 흡수	인지성 복합성 확장성	장식을 절제하고 단순한 매스의 형태로 침묵이라는 주제로 중성적 재료로 공간 내·외부를 표현했다. 외부에서 보면 본당의 건물은 단순하면서 폐쇄된 상자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제단 위 천장의 좁은 유리창과 제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의 축창, 성도석 오른쪽 천장의 보 사이로 떨어지는 자연광으로 인해 은은한 빛의 커튼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경건하고 엄숙한 이미지의 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모서리에서 빛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늘을 향한 벽의 무한성과 이웃을 향한 세로의 벽의 경계를 없애므로서 공간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p>금산천주교회, 김영섭, 한국, 2000</p>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명암 지각	굴절 통과 반사	시간의 연속성 인지성 확장성 복합성	부채꼴 모양의 본당 내부는 좁고 긴 창이 있는 모서리를 제단으로 하여 그 중심으로부터 끝 벽까지 지붕에서 띄워진 부채의 살 모양으로 이뤄져 있다. 빛은 좌우측과 후면 얇은 축창으로 들어와서 부채살 모양의 천장 구조체에 반사되고 흩어져서 하나의 공간의 표면을 분절하여 부드러운 공간으로 인지되도록 한다. 정면의 세로로 긴 창은 좁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가는 빛을 삽입함으로써 경계의 벽을 허물어 경계의 확장을 꾀하는 복합성을 나타낸다.

17)서정연, '빛과 공간예술'에서 빛에 의한 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4호 통권51호, 2005.8, pp.41-42 요약

<표 2> 1990년대 이후 종교공간에서 나타난 빛의 현상학적 특성에 관한 사례조사

공 간 사 례	지각적 특성	지각적 연출효과	현상적 특성	빛의 특성 분석		
동경 그리스도의 교회, Maki Fimihiko, 일본, 1995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흡수 통과	시간의 연속성 인지성 탈물질성 환상성	본당 입구인 전실에 수직루버를 설치하여 일본전통과 현대의 모습을 조화시키면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로 공간에 생동감을 준다. 본당 내부는 제단에 빛으로 충만한 유리벽으로 되어있어서 공간 내부의 다른 요소의 물질성을 사라지게 한다. 부드러운 백색광으로 가득 찬 무중력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유리벽은 반투명유리와 접합유리를 사용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낮과 밤에 각각 자연광과 인공조명을 투과 조절하며 안과 밖이 역전된 듯한 탈 물질적인 환상적인 공간을 만든다.
Ecumenical Church, Kister-Schithauer-Gross 건축그룹, 독일, 2004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명암 지각	굴절 반사 흡수	인지성 확장성 환상성	에큐메니칼은 자신들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들의 연합 운동을 가리킨다. 이 교회도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노솔콘크리트가 주재료이며 단층인데도 높은 15m에 이르는 천장고와 두 교회의 각 영역마다 천장의 일부가 중곡동 성당처럼 자연광이 절제미를 가지도록 구성되었으며, 이는 공간의 숭고함과 환상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천주교회의 제단은 엄숙함을 나타내도록 벽체 하부를 뒤로 밀어 상부에 빛을 떨어지게 하였고, 개신교회는 제단에 띄운 패널의 앞뒤로 인공조명을 비춤으로써 밝고 생기있는 공간을 만든다.
주빌리 교회(Jubilee Church), Richard Meier, 로마, 2003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명암 지각	굴절 흡수	인지성 확장성 환상성 방향성	상부, 성자, 성령을 암시하는 세 겹의 둥근 벽의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건물 외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에서도 세 겹의 벽사이로 들어오는 풍성한 빛의 유희를 즐길 수 있다. 보통 구조체의 의해서 생기는 음영의 효과는 공간에 강한 분절 효과를 주는데, 이 세 겹의 벽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온화하고 따뜻하며 전면의 제단과 상부의 천장 등으로 인해 공간의 확장성은 물론, 빛으로 가득 찬 느낌이 드는 환상적인 빛을 자아내면서 동시에 제단 축로의 방향성도 암시한다.
Herz Jesu Kirche, Allmann-Sattler-Wappner그룹, 독일, 2000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명암 지각	굴절 흡수 통과	시간의 연속성 인지성 탈물질성 환상성	복도를 경계로 단단하고 매끈한 유리벽의 외피와 본당의 목재패널로 만들어진 내피로 구성이 되어, 현대건축의 '스킨 개념'이 드러나 있는 교회이다. 본당에는 2개의 스크린 장치가 있다. 하나는 본당 제단(정면)의 메탈실로 만든 스크린이며, 다른 하나는 본당의 좌우측 벽체의 목재패널이다. 외부 불투명유리와 제단의 메탈스크린을 차례로 통과한 빛은 본당을 탈 물질화 시켜 환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양측의 목재패널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간과 계절에 따른 빛의 유입량도 조절해주어 시간의 연속성의 특징을 띤다. 이중 구조의 스크린으로 인해 낮과 밤의 빛의 역전으로 인한 탈 물질적인 환상 공간이 된다.
Holy Rosary Catholic Church, Trahan Architects, 미국, 2005			공간적 분포 시간적 변화 명암 지각	굴절 반사	인지성 확장성 환상성	루지아나주에 있는 이 성당은 지금까지의 예 중에서 가장 작은 본당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특이한 공간이다. 교육 공간들이 이 성당을 감싸고 있으며, 중정의 가장 안쪽에 본 성당이 들어서 있다. 단단해 보이는 정육면체의 내부로 들어가면 그곳은 극도로 절제되어, 들어가는 이의 맘을 정갈케 해주는 듯이 보인다. 천장에서부터 빛의 길을 따라 이리저리 굴절되고 반사되어 좁은 창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는 빛을 하나의 물질처럼 다루어서, 침묵과 더불어 정신적인 공간을 확장하는 확장성을 부여하고 있다.

5. 결론

종교 공간은 미약한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인 신을 만나고 이웃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빛의 연출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인간의 체험이 공간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에 현대 종교공간에서 빛의 현상학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종교 공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간인지의 가장 큰 요소인 빛의 지각적 특성과 잘 짜여진 그것의 지각적 연출 효과를 통해서, 그 공간만의 현상학적 특성을 드러나게 되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빛의 가장 주되고 공통된 지각적 특성은 빛으로 인해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다. 또한 빛의 여과 방법-색유리, 맑은 유리, 불투명유리 등-과 표현되는 색감에 따라 명암과 색의 지각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대부분 현상적 특징 중 종교공간의 인지성과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며, 후자는 종교 공간의 특수성-성스러움, 경건함-을 표현하기에 좋은 환상성과 탈물질성의 현상적 특성을 가진다.

둘째, 공간은 여러 건축적인 장치-벽, 보, 창 등 구조적·비구조적 요소-를 사용하여 반사, 굴절, 흡수, 투영, 분산 및 차폐의 연출 효과를 갖는다. 이로 인해 빛은 공간인지에 영향을 미쳐서 공간감의 지각과 창조에 영향을 미친다. 사례를 통해서 본 종교공간의 가장 많이 쓰인 빛의 연출방법은 반사, 굴절, 흡수의 방법으로 확장성과 환상성, 때로는 복합성의 현상적 특성을

나타낸다. 반투명재질과 투명재질로 통과된 빛은 색채와 결합하여 탈물질적 공간으로 인지되고, 더 나아가 환상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종교공간에서 신에 대한 경외심과 신비감을 고취시키는데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대 종교적 공간은 빛을 다룸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공간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서부터 종교 공간에서의 빛의 다룸은 가장 중요한 공간 표현요소 중 하나였으나 현대는 기술의 발달로 빛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이 공간에서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발전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간의 공간체험은 빛과 같은 시각적 관계 외에도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종교 공간에서도 또 다른 현상적 특징을 고려한 공간적 연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민, 현상과 시간, 도서출판 까치, 1995
2. 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예술출판사, 1991
3. 박길룡, 현상으로서 건축, 공간, 1994.1
4. M. Merleau Ponty,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평역, 서광사, 1983
5. M. Merleau Ponty,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
6. 김선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1989
7. 김광현, 건축과 공간, 이상건축, 2000.7
8. 임승빈, 도시에서의 현상적 체험, 공간, 1994.1
9. John Lobell, Between Silence and light, 침묵과 빛, 김경준 역, 미진사, 1992
10. 김진균, 시각구조 분석에 의한 건축공간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2호, 1994
11. Jonathan Glancy & Richard Bryant, The Mew Moderns, Reed International Books Ltd., 1990
12. 고광용, 저작적 측면으로 접근한 빛의 연출방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3
13. 이종희, 현대 교회건축에 있어서 창외의 형태에 따른 빛의 유입 방식 및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0호, 2002.2
14. 민우식, 스티븐 홀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의 연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15. 박진영, 현상학적 지각에 의한 벽의 현상적 연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3
16. 손광호, 현대건축 수공간의 현상학적 체험과 해석, 경상대학교 박사논문, 2005
17. 서정연, '빛과 공간예술'에서 빛에 의한 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4호 통합51호, 2005.8
18. 오승남·이호중, 빛을 통해 표현되는 공간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2호 통합491호, 2005.4
19. Steven Holl 1996-1999, ELcroquis93, 1999
20. place of worship, architecture record, 2001.10
21. Jubilee Church, architecture record, 2005.2
22. sacred space, architecture record, 2005.5
23. 스페인 건축 사이트 <http://www.floornature.com>